

힙합춤의 의미와 가치 연구

이 우 재*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한국 힙합댄스의 발전

1. 힙합댄스의 수용 및 발전

2. 힙합댄스의 유형

III. 춤 용어의 의미와 가치

1. 힙합댄스와 스트리트 댄스의 의미

2. 춤과 무용의 의미

3. 춤 용어의 가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in meaning and value of HipHopChoom

Lee, Woo-jae·Hanlim multi Art school

The study investigates terminology related to Korean 'Hip Hop Choom' to introduce its meaning and value as a Korean culture. 'Street Dance' is limited in scope as it implies it was born in the street. 'Hip Hop Dance' is, however, found suitable as a term because it can imply Street Dance and various Modern Dance in the aspect of culture. The study suggests 'Choom' should be adopted rather than 'Dance' to indicate the feature as a Korean culture as it is an intrinsic Korean term. The study is to propose 'Hip Hop Choom' is more suitable than 'Hip Hop Dance' for introducing the meaning and value of Korean hip hop culture that has made an exceptional progress in education, study and art.

key words: hip hop dance, street dance, b-boying, b-boy, hiphopchoom.

주요어: 힙합춤, 힙합댄스, 스트리트 댄스, 비보잉, 비보이, 힙합, 춤

* 한림예고학과장, 세종대 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논문투고일: 2014. 10. 20. 심사일: 2014. 11. 21. 게재확정일: 2014. 12. 7.

I . 서론

힙합댄스가 대표적으로 한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마이클 잭슨의 춤과 1983년 개봉된 ‘플래시댄스’, 1984년 개봉된 ‘브레이킨 1, 2’,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 때 펼쳐진 브레이크댄스 공연의 영향이 크다. 춤과 영화는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젊은이들을 거리, 공원, 지하철 등의 연습장소로 불러내어 힙합댄스에 열광케 하였다.

한국에 유입된 비보잉은 일명 ‘자료’라는 해외 댄서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춤을 연습하였다고 한다(김상우, 2012: 188-189). 이러한 방식의 연습은 외국 댄서들의 춤 동작을 모방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영상이라는 간접적인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국인 체형에 맞는 춤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갔다는 장점이 있다(이우재, 2010: 71-72).

여기서 팔목할 점은 한국의 힙합댄스로 대표되는 비보잉이 간접적인 수용을 통해 한국적인 스타일로 발전하며 세계대회 석권과 함께 세계 비보이들에게 교과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비보잉이 미국 비보잉과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하여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한국의 힙합문화로 발전한 비보잉을 세계무대에 알릴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비보잉뿐만 아니라 힙합댄스에 관련된 세계의 춤꾼들에게 한국적인 비보잉과 함께 한국문화의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한국의 힙합댄스가 과거 젊은이들의 놀이문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학문, 예술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어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상우, 2012; 박성진, 2013; 최중환, 2012; 이우재, 2010). 본 연구는 힙합댄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단편적으로 나타난 힙합댄스의 수용과정 및 발전, 그리고 춤 용어에 관련된 내용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여 한국문화 속에서 ‘힙합’과 ‘춤’에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힙합춤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힙합댄스에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힙합댄스’와 ‘스트릿 댄스’가 혼용되고 있으며,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춤’, ‘무용’, ‘댄스’로 사용된다는 점에 기인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용어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힙합댄스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에 표현될 적합한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용어의 혼용을 개선하고 한국문화로서의 ‘춤’과 ‘힙합춤’의 가치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 한국 힙합댄스의 발전

1. 힙합댄스의 수용 및 발전

힙합댄스는 1980-1990년대 마이클 잭슨의 ‘문 워크(moom walk)’ 춤과 힙합댄스영화가 개봉되면서 매체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그리고 1991부터 1995년경에는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에 의해 힙합댄스가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이태원의 ‘문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문화가 형성되어 전문적인 힙합댄서와 프로 힙합댄스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힙합댄서와 프로팀이 전문적으로 등장한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전문적인 해외댄스자료를 보면서 춤과 패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최중환, 2012: 68-73).

한국에서 힙합댄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1999년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인 ‘99월드 힙합페스티벌’, 2000년 ‘스트릿 댄스2000’, 2001년 ‘스트릿잼’ 등의 전문적인 힙합댄스 행사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최중환, 2012: 75-77).

김상우(2012:188-189)는 한국 비보잉이 발전한 계기를 해외의 댄스 비디오를 보기 시작한 시기로 판단한다. 이 시기에 댄서들은 모여 힘들게 구한 댄스 비보오, 일명 ‘자료’라는 것을 돌려보며 연습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에 의해 국내 댄서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전문 비보이팀을 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연구자는 1996년을 한국 힙합댄스의 르네상스라 칭하며 그동안 맥이 끊겨온 힙합댄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재도약 시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모방의 시기로 해외 힙합댄스 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온 멋진 동작을 먼저 모방한 댄서가 인정을 받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 까지는 도용의 시기로 국제대회가 개최되면서 국내 춤꾼들이 더는 모방할 수 없어 부분적인 도용을 거치면서 한국적인 힙합댄스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우재, 2010: 17-72).

한국 힙합댄스의 발전은 1990년대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댄스 자료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1999년 이후 국제적인 힙합댄스 행사가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교류와 함께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며 2001년 이후로는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힙합댄스 발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에 수용된 경로가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용되어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즉, 한국 힙합댄스가 미국의 힙합댄서들에게 직접 배우기보다는 ‘자료’라는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터득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거치면서 한국 비보이는 2001년 세계 메이저 4대 대회의 하나인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 첫 출전하여 퍼포먼스 부문 1위를 차지하였다. 2001년 한국은 퍼포먼스 부문과 배틀 부문 모두를 석권하였다.

세계 비보잉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배틀 오브 더 이어에서 한국 비보이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회 우승을 하였다.¹⁾

한국 비보잉의 연이은 세계 메이저대회 우승과 그랜드슬램 달성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적은 해외에 초청되어 세계 댄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 비보잉의 교과서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박성진, 안병주, 2012: 862-863).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세계무대에서 독특한 프리즈를 보여준 비보이 홍텐의 무브는 ‘홍텐 프리즈’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고 있다. 또한, 비보이 김효근이 보여준 16바퀴의 엘보스핀elbow spin은 현재까지도 세계 비보이들에게 회자되는 전설의 무브로 남아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모인 한국 비보잉 영상은 해외 비보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보잉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김기국, 2012: 23-24). 이렇듯 한국의 비보잉 스타일은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실증을 보여주며, 세계 비보잉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한국 비보잉이 세계 힙합댄스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힙합댄스의 유형

1) 비보잉b-boying

‘비보잉b-boying’은 갱단에서 우월을 가리기 위해 추던 춤인 ‘업락uprock’에서 발전한 것으로, 초창기는 빠른 스텝과 상대방을 위협하는 손동작 위주로 추는 춤이었다. 점차 곡예적인 동작이 추가되면서 지면에서의 움직임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지면에서 추는 춤을 고다운Godown 또는 다운락downrock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풋워크Footwork와 프리즈Freeze, 파워 무브power move등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후 업락과 고다운이 혼합되어 비보잉 스타일을 이루게 된다(김상우, 2012: 104-105).

비보잉은 곡예적이고 회전하는 동작 위주로 이루어진 ‘파워 무브power move’와 파워

1) 2001년 ‘비주얼 쇼크(퍼포먼스 부문)’, 2002년 ‘익스프레션’, 2004년 ‘젬블러 크루’, 2005년 ‘라스트 포원’, 2007년 ‘익스트림 크루’, 2009년 ‘젬블러 크루’, 2010년 ‘진조 크루’로 대회 10년 동안 한국 비보이들이 대부분 우승을 차지한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진조 크루는 배틀 오브 더 이어 외에도 4대 국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면서 세계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업적은 비보잉이 탄생한 미국도 이루지 못한 쾌거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비보잉은 세계 비보잉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무브를 자신의 신체에 맞게 응용하여 개성적인 동작으로 창조한 ‘스타일 무브style move’로 나누어진다.

2) 팝핑popping

팝핑은 부갈루 샘boogaloo Sam이 발전시킨 춤으로 음악에 맞춰 근육을 튕기며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부갈루 스타일boogaloo style’이라고도 하지만, 팝핑과 부갈루 스타일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팝핑은 춤을 출 때 근육을 툭툭 끊는 스타카토 형식이며, 부갈루 스타일은 스타카토 형식과 함께 어깨와 골반을 주로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이우재, 2010: 51).

3) 락킹Locking

락킹은 미국의 ‘돈 캠펬Don Campbell’이라는 댄서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1970년대 LA지역에서 웨스트코스트 FUNK 음악에 기반을 둔 춤으로 몸을 열쇠로 잠기는 듯이 멈추는 동작인 ‘락Lock’과 손으로 공간을 찌르는 듯한 동작인 ‘포인트point’가 주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이우재, 2010: 53).

4) 뉴 스타일 힙합new style hip hop

뉴 스타일 힙합은 미국의 댄서인 ‘부다 스트레치Buddha Stretch’와 그의 팀으로 이루어진 ‘엘리트 포스 크루Elite Force Crew’ 의해 발전한 춤으로 뉴 스쿨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춤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프리스타일 힙합freestyle hiphop, 리얼 힙합real hiphop으로 부르기도 한다. 80년대 말에 하우스 파티와 클럽에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동작을 혼합하여 응용한 춤이다. 서서 추는 동작이 주를 이루며 강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현대적으로 생산해 낸 자유로운 춤이다(이우재, 2010: 53-54). 이 춤은 업다운updown과 바운스bounce 등의 신체의 리듬감과 유연성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아이솔레이션isolation 동작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김상우, 2012: 130).

5) 하우스 댄스house dance

‘하우스’라는 용어는 시카고의 클럽 ‘웨어하우스warehouse’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DJ들은 믹스 ‘테이프mix tape’를 만들어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는데, ‘웨

어하우스 뮤직warehouse music'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우스 음악house music'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이 음악에 맞춰 추기 시작한 춤을 하우스 댄스라고 한다. 이 춤은 주로 발동작을 사용하며 아프리카 댄스, 탭댄스, 썸바, 레게, 살사 등의 다양한 춤을 응용하여 만든 점이 특징이다(이우재, 2010: 55-56).

6) 크럼핑Krumping

크럼핑은 토미 존스가 만든 '크라우닝Clowning'이란 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닝은 얼굴에 광대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추던 춤이었다. 2000년대 타이트 아이즈Tight Eyez와 빅 미조Big Mijo 등이 이를 변형시켜 공격적이고 더욱 거친 크럼핑으로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 춤은 주먹을 휘두르며 발을 지면에 강하게 내리치고 가슴을 튕기는 등, 과장되고 위협적인 동작이 특징으로 나타난다(김상우, 2012: 132-133).

7) 왁킹Waacking

왁킹은 1972년경에 타이론 프락터Tyrone Proctor와 '아웃레이저스 왁 댄서스The Outrageous Waack Dancers'의 팀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한다. 당시 타이론 프락터는 춤을 가르치면서 팔을 후려치듯 내던지는 동작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후려치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왁wack'을 사용하였는데 'wack'에는 '형편없는, 나쁜'이란 뜻이 있다는 이유로 'a'를 두 개 넣어서 'Waack'이란 용어가 탄생하였다고 한다(Tyrone Proctor 인터뷰, 2010, 김상우, 2012: 114-115 재인용).

왁킹에는 게이적인 느낌의 동작을 좀 더 남성적으로 표현한 '핑킹punking'이 있다. 또한, 여성이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만든 동작과 보그Vogue 잡지의 포즈를 보고 여성보다 더 여성스런 포즈를 할 수 있다는 동작을 표현한 '보킹 댄스Voguing Dance'가 있다.

8) 일반댄스Urban dance

일반댄스는 미국의 LA지역에서 발전한 춤으로 팝 뮤지션들의 안무에서 나온 춤이다. 'LA스타일 힙합LAstyle hiphop', '컨템퍼러리 힙합contemporary hiphop'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뉴 스타일 힙합에 현대무용과 재즈댄스의 몸의 라인과 서정성을 살려, 가사에 표현되는 느낌과 감정표현을 극대화 시킨 점이 특징이다. 특히 동작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을 '스피드 컨트롤speed control' 또는

‘패스트 앤 슬로우fast & slow’ 방식이라고 한다.

9) 걸스힙합girl’s hiphop과 방송댄스K-pop dance

걸스힙합과 방송댄스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걸스힙합girl’s hiphop은 미국의 섹시한 여성가수나 댄서들에게 영향을 받아 ‘체스트 chest’와 ‘힙hip’ 동작을 주로 사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한 춤이다. 방송댄스는 ‘K-pop dance’로도 불린다. 방송댄스 역시 한국에서만 쓰는 유일한 용어다. 가요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에서 댄스가수와 백업댄서들의 안무동작을 모방하는 춤을 방송댄스라 일컫는다. 최근에는 대학에 K-pop dance 전공 학과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힙합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올드 스쿨old skull’과 ‘뉴 스쿨new skull’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의 유형은 대체로 춤이 탄생한 시기별로 나뉘는 데, 올드 스쿨은 초창기에 탄생한 춤을 얘기하며 그 후에 다양한 춤이 혼합되어 탄생한 춤을 뉴 스쿨로 보고 있다. 올드 스쿨에는 비보잉, 락킹, 팝핑, 왁킹 등이 있으며, 뉴 스쿨에는 뉴 스타일 힙합, 하우스, 크럼핑 등이 있다. 최근에는 얼반댄스가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걸스힙합과 방송댄스가 있다.

Ⅲ. 춤 용어의 의미와 가치

1. 힙합댄스와 스트리트 댄스의 의미

일반적으로 ‘힙합’은 다양한 영역의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음악, 랩, 이에 관련된 댄스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힙합’이라는 용어는 ‘힙합문화’의 약자로 힙합에 관련된 모든 문화를 일컫는 용어이다. 대표적으로 엠씨Mcing, 디제잉DJing, 비보잉, 그래피티Graffiti의 4대 요소로 나누어진다.

힙합문화의 ‘비보잉’과 ‘비보이b-boy’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보잉’은 댄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보이’는 비보잉을 추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다. 비보잉은 1970년대 디제이 쿨 허크DJ Kool Herc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힙합댄스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사용된 용어이다. ‘비보잉’은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브레이크 댄스는 언론에서 거리의 독특한 댄스를 지칭할 때 만든 용어로 1980년대 이후에 탄생하였다. ‘비보이’는 ‘beat boy’와 ‘break-boy’의 의미로서 음악 간주 부분에 화려한 춤을 추는 사람을 칭한 것이다(김상우, 2012:102-103, 119-120).

초기에는 비보잉이 모든 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됐지만, 점차 브레이크 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불리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힙합을 한다고 해도 힙합문화 전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힙합을 한다고 할 때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댄스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힙합’에 ‘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스트릿 댄스’와 ‘힙합댄스’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혼용을 피하고 용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스트릿 댄스와 힙합댄스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박성진과 안병주(2012: 862)는 스트릿 댄스가 거리에서 발생한 춤이지 거리에서 추는 춤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성진(2013: 31)은 국내에 스트릿 댄스의 용어가 알려진 시기가 1999년 한국에 방문한 일렉트릭 부갈루스Electric Boogaloos에 의해 알려졌다고 보며, 스트릿 댄스란 거리와 관련된 모든 문화를 통칭하는 것으로써 거리문화에서 생겨난 춤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우(2012: 20-21)는 스트릿 댄스의 발생 초기 춤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댄서들이 길거리, 클럽, 공원 등의 야외에서 그들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데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최종환(2012: 10-11)은 스트릿 댄스란 정규 무용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길거리, 클럽, 하우스 파티 등,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성된 춤으로 아카데미academic무용에 반하는 반아카데미anti-academic의 상징으로 길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본래의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종환(2012: 7)은 힙합댄스란 스트릿 댄스, 얼반 댄스, 케이팝 댄스, 팝 댄스pop dance 등을 포함하는 범주로서 문화적인 형태의 춤으로 보고 있다. 정지원(2013: 250)은 힙합댄스란 스트릿 댄스 전체를 대변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스트릿 댄스가 힙합문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젊음의 문화로써 자연스럽게 힙합문화에 흡수되면서 힙합댄스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상우(2012: 33-36, 193)는 힙합댄스는 스트릿 댄스란 말이 일반화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용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힙합댄스는 힙합이라는 음악적인 영향으로 인해 힙합댄스로 불리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힙합댄스란 표현보다는 ‘스트릿 댄스’ 혹은 춤의 각 장르를 구분하여 언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학계에서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댄스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두 용어에 대한 의미에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성진과 안병주(2012: 863)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스트리트 댄스가 힙합재즈, 펑키재즈, ‘힙합댄스’ 등의 이름으로 잘못 사용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성진(2013: 16)은 국내에서 스트리트 댄스가 사용되기 전에 학계에서도 스트리트 댄스 용어보다 힙합댄스의 용어가 익숙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도 힙합댄스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트리트 댄스가 힙합댄스로 사용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종한(2012)은 힙합댄스라는 용어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구 논제를 ‘힙합댄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점은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댄스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써 힙합댄스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댄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두 용어의 의미가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의 의미를 한국문화로 수용된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얼반댄스는 스트리트 댄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현대무용과 재즈댄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걸스힙합과 방송댄스K-pop dance도 스트리트 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스트리트 댄스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춤과 음악에 파격적인 영향력을 미친, 가수 ‘싸이’의 ‘말춤’을 스트리트 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스트리트 댄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스트리트 댄스, 얼반댄스, 걸스힙합, 방송댄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힙합문화의 범주로 판단할 수는 있다. 만일 스트리트 댄스가 힙합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비보잉이 스트리트 댄스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힙합문화의 기본적인 4대 요소 중 하나가 비보잉이며, 스트리트 댄스의 의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보잉, 팝핀, 락킹, 왁킹, 뉴 스타일 힙합, 하우스, 크럼핑, 얼반댄스, 걸스힙합, 방송댄스를 포괄적인 범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로는, 힙합문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힙합문화를 다시 포괄적인 댄스범주로 표현하자면 ‘힙합문화’와 ‘댄스’가 융합된 의미로써 ‘힙합댄스’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 춤과 무용의 의미

우리는 ‘춤’을 무용, 무도, 댄스라는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춤, 무용, 무도 등을 영어로 표기할 경우 ‘댄스Dance’라는 국제용어로 사용한다. 그런데 춤과 무용은 같은 의미로도 보지만,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춤추러 가자고’는 하지만 ‘무용하러 가자’는 말은 전공자 외에는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현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신명숙, 2004: 14). 그렇다면 춤과 무용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용’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의 용어는 ‘춤’이다. 춤을 한자로 표기할 경우 ‘무舞’라는 외자를 덧붙여 처용무處容舞, 학무鶴舞, 승무僧舞 등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무舞’의 춤 어원은 ‘추다’, ‘추켜올리다’, ‘받들다’의 의미로써 무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무巫’에서 유래하였다(권운방, 최청자, 김경신, 손경순, 도정님, 2003: 13-14).

신명숙(2004: 15)은 한국의 고대부터 사용한 용어가 ‘춤’이라고 추측하며, 춤의 유형을 민속춤, 교방무, 궁중무, 종교 의식무로 나누고 있지만, 민속과 관련된 살풀이춤, 무당춤, 부채춤, 갈춤, 북춤, 탈춤 등을 ‘춤’ 자를 부쳐 부르고 있다고 한다. ‘춤’이란 용어는 자연스럽게 불린 것으로 민간인들이 즉흥적으로 춤 때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춤’이란 한국 고유의 언어로써 예부터 종교의식, 궁중행사, 마을행사에서 민간인과 양반이 함께 즐기던 놀이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의 삶과 정서의 맥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한국에 알려진 시기는 1914년으로 서양무용이 일본을 통해 조선에 알려지면서 신무용新舞踊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고 이 때문에 무용이라는 단어가 매일신보 기사에서 알려졌다. 무용이란 용어를 만든 사람은 일본의 영문학자인 ‘스보우치坪内消遙’로 1904년 ‘신악극론神樂劇論’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권운방 외, 2003: 14).

무용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무용을 수용한 신무용가들이 공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춤’보다는 ‘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를 1914년 이후로 볼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무용이라는 용어가 없던 시기로 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들은 주로 권변의 기생들이나 남사당패에 의해 그 명목을 유지해 왔다. 기생과 남사당패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으로도 천민에 해당하는 신분이므로 춤을 추면 천하다는 이미지를 받게 되었다. 백현순(2006: 87)은 최승

회의 신무용에 대해 고찰하면서 그 시대에 춤을 천한 신분이 추는 것으로, 신무용의 새로운 춤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보우치가 만든 ‘무용’이라는 용어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렇듯 신무용이 일본에서 유입된 후, 예술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적인 춤과 구분하기 위해 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춤 용어의 가치

1) 한국문화로서의 춤 용어의 가치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무용축제인 ‘몽펠리에 댄스 페스티벌 Montpellier Danse festival’이 개최되었다. 그런데 국제표기를 살펴보면 영문으로 ‘댄스 Dance’가 아니라 프랑스 언어인 ‘당스Danse’로 표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인 축제는 댄스라는 영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이하게도 ‘당스’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의 춤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 안무가 ‘피나바우쉬Pina Bausch’로 인해 발전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연예술이다. ‘탄츠Tanz’는 영어로 ‘댄스’라는 뜻이며 한국어로는 ‘춤’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댄스테아터Dancetheater’라 불리기보다는 독일식 언어인 ‘탄츠테아터’로 강조하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댄스라는 용어보다는 탄츠라는 용어를 강조하여 자국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프랑스의 ‘당스’와 독일의 ‘탄츠’를 강조하는 이유도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알리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국의 춤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용어를 찾아보자면, 한국 고유의 언어인 ‘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로서의 ‘춤’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용어 표기에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무용’은 국제적으로 표기할 경우 ‘Korean Traditional Dance’로 표기된다. 한국전통무용의 용어표기에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무용’과 ‘Dance’다. 무용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일본어에서 파생한 용어이기 때문에, 한국전통에 ‘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용’을 지양하고 ‘춤’을 강조하여 ‘한국전통무용’을 ‘한국전통춤’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통문화에 부합되는 ‘춤’을 국제적인 용어로 표기할 경우 ‘댄스Dance’를 ‘Choom’으로 표기하여 ‘Korean Traditional Choom’으로 표기하는 것이 한국문화의 변별성을 세계속에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2) 힙합 춤 용어의 가치

힙합댄스는 스트리트 댄스와 얼반댄스, 걸스힙합, 방송댄스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힙합댄스는 한국에 수용되어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문화에 맞게 발전되었다. 한국의 힙합댄스로 대표되는 비보잉은 세계최초로 세계 메이저대회 우승을 휩쓸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국제적인 교과서로까지 거듭나 세계 중심에 서는 비보잉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비보잉뿐만 아니라 락킹, 팝핀, 왁킹, 뉴스타일 힙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우승하며 한국 힙합댄스는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공연예술로까지 발전하여 국제공연예술 무대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국정홍보처²⁾는 2005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할 목적으로 ‘축구’, ‘드라마’, ‘반도체’, ‘한복’과 함께 ‘비보이’를 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실용무용과가 개설되어 힙합댄스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통해 학사학위 과정을 마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힙합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힙합댄스는 종주국인 미국과 힙합댄스의 선진국인 유럽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제 한국의 힙합댄스는 미국의 힙합댄스를 흉내 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로 발전하여 해외 힙합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교육, 학문, 예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큼 발전한 한국 힙합댄스를 해외 힙합댄스와 구별하고, 한국의 춤으로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 언어인 ‘춤 Choom’을 강조하여 ‘힙합춤Hip-HopChoom’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합당한 시기가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실례로 가까운 순수무용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현대무용’이라는 용어가 영문으로 ‘모던 댄스Modern Dance’와 ‘컨템퍼러리 댄스Contemporary Dance’로 사용되고 있다. 김채현(2008: 64)은 모던 댄스와 컨템퍼러리 댄스는 명확한 단절에 의해서 이루어진 명칭이 아니라 서로 대항하는 태도로써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였지만, 서로 일정 부분 공유점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모던 댄스 테크닉을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컨템퍼러리 댄스’는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모던 댄스를 영국이 도입한 이후, 미국의 모던 댄스에 맞서기 위해 영국식의 모던 댄스를 지칭하다가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김채현, 2008: 64). 이러한 사례처럼 힙합댄스를 ‘힙합춤Hip-Hop Choom’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2) (SBS창사특집, 2007. 11. 14). 또한, 사단법인 한국 비보이 협회장은 2009년 취임사에서 한국 비보이를 한류를 대표하는 대표브랜드로써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공연문화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프라임신문, 2009. 12. 28).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문화로 발전한 힙합춤에 대해 고찰로서 한국문화로서의 ‘힙합춤’의 가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댄스를 한국문화에 수용된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댄스는 문화적 범주에서 ‘힙합문화’와 ‘댄스’를 융합한 ‘힙합댄스’라는 용어로 표기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용’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하던 신무용가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그 이전에는 한국 고유의 언어인 ‘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국고유문화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춤’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영문도 ‘Choom’으로 표기하는 것이 시대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전통무용’은 ‘한국전통춤’으로 바뀌어야 하며, 영문도 ‘Korean Traditional Choom’으로 표기하는 것은 언어와 예술 그리고 삶을 아우르는 것이 문화라는 시대적 개념에 발맞추는 것이다.

미국 힙합댄스와 차별화 된 한국문화적 의미를 지닌 ‘힙합춤Hip-hopChoom’으로의 표기는 한국문화로서의 힙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기국 (2012), “대한민국 비보이 크루의 대중성과 차별성”,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지 20(1)**, 9-32.
- 김상우 (2012), **스트리트 댄스**, 서울: 좋은땅.
- 권윤방, 최청자, 김경신, 손경순, 도정님 (2003), **무용학 개론**, 서울: 대한미디어.
- 김채현 (2008), **춤, 새로 말한다 새로 만든다**, 서울: 사회평론.
- 박성진 (2013), “스트리트 댄스의 교육 현황 및 인식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성진, 안병주 (2012),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전공별 인식 차이 연구”,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학회지 21(4)**, 861-872.
- 백현순 (2006), “최승희가 남긴 ‘신무용’의 유산, 어떻게 할 것인가?”, **공연과 리뷰 75호**, 서울: 현대미술사.
- 신명숙 (2004), “『춤』 용어들로 보는 고대 한국 무용사 흐름”, 체육사학회지, **한국체육사학회지-(14)**, 13-22.

- 이우재 (2010), **힙합, 새로운 예술의 탄생**, 서울: 돌출새김.
- 정지원 (2012), “힙합댄스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안무”,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지 31(1)**, 243-267.
- 최종환(2012), “한국 힙합댄스 발전과정과 가치인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프라임신문(2009), “국회의원 한선교, 한국비보이협회 회장 취임”, 12월 28일.
- SBS 창사특집(2007), “SBS 창사특집 신화창조 코리안 비보이(B-boy)”, 11월 14일.